



땅 하나에 소유자가 무려 445명?

기획부동산 업체 제주 토지 투자유혹 활개
“대부분 절대보전지역 등 개발 불가능한 땅”

제주지역 개발 호재를 미끼로 기획 부동산 업체가 임야를 수백 지분으로 쪼개 분양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제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흥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을)은 제주도내 토지거래 현황을 살펴본 결과 9월 현재 공유인 50인 이상 필

지는 324곳으로 총면적은 마라도 면적(30만㎡)의 27배에 달하는 816만 1936㎡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한 필지당 평균 소유자는 148.8명이며, 면적의 97%가 목장 용지와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필지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내 땅으로 총 소유자가 445명에 이른다. 이

토지의 경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인 곳자랄 보전지역으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기획부동산 업체가 해당 토지에 평당 98만원을 투자하면 2년 안에 135만원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유치, 100억원 이상을 가로챘 혐의로 최근 기소돼 관련자 10명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자(288명)가 3번째로 많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한 토지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절대보전지역은 건축물 설치, 토지 분할, 토석 채취, 도로 신설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박흥근 의원은 “문제가 되는 토지들은 개발을 추진한다 해도 전국에 흩어진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지분 공유자가 늘어날수록 사용하지 못하는 땅이나 마찬가지”라며 “기획부동산의 비정상적인 지분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석기자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유족들은 8일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3일 제주4·3 행방불명 유족 10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 소송을 하루빨리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상국기자

“재심청구 4개월 지나… 빨리 재판하라”

4·3행방불명수형인 유족 어제 법원 앞 기자회견

재심 촉구 의견서 제출

제주4·3 당시 행방불명된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자 유족 100여명이 제주지방법원 앞에 모여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는 8일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3일 제주4·3 행방불명 유족 10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 소송을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행방불명 수형인들은 70여년 전 불법적인 국가공권력에 의해 고귀한 생명을 무자비하게 희생당해야 했다”며 “영터리 재판으로 도민 2530명이 유죄를 선고 받고 상당수는 6·25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형무소에서 학살되거나 행방불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당시 자행됐던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은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유족들마저도 나이들고 병들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철희(59)씨는 “4·3 당시 아버지가 폭도로 몰려 재판을 받고 1949년부터 1956년까지 7년 6개월 정도 마산과 대전 등의 형무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며 “수형생활을 마치고 제주에 왔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을 전전해야만 했다. 또 나를 포함한 자식들은 연좌제에 걸려 직장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등 2차 피해를 받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행방불명 유족협의회는 이날 제주지법에 조속한 재심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기존 10명 외에 391명을 추가로 발굴해 현재 선임된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한편 지난 1월 17일 4·3수형생존인 18명이 청구한 재심 재판에서 제주지법은 “군법회의를 받은 2530명에 달하는 사람의 수와 개회일자 등 재판사정을 종합해도 단기간에 다수의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을 것이라 추정키 어렵다”며 당시 진행된 군법회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공소기각’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진 형사보상에서도 수형 사실을 인정, 국가가 총 53억4000만원의 형사보상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공정임금제 이행 약속
외면하면 17일 총파업”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감의 직접 교섭과 공정임금제 이행을 촉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이하 연대회의)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문제인 정부와 많은 교육감들이 공정임금제 실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교육당국은 사실상 임금동결만을 고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자은기자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시위를 벌였다.

강희만기자

국감 받는 날… 도청 밖 제2공항 갈등

반대단체 감사촉구 회견… 찬성단체 맞불집회
국회의원 버스 진입 과정 반대 주민-경찰 충돌

제주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도민들이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 등은 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문제투성이인 제2공항 계획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오전 9시40분쯤

국회의원이 탄 버스가 제주도청에 진입하려하자 이를 막아서며 소동이 빚어졌다. 여기에 반대편인 제주도교육청 앞에서는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 등 찬성 측이 맞불집회를 열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성산읍추진위는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만이 도민 갈등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아울러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소동은 버스 진입로를 확보하려는 경찰, 청경과 이를 막아서려는 반대

주민들의 충돌에서 비롯됐다. 곳곳에서 고성과 물리적 충돌이 오고 가는 상황이 이어졌고, 강원보 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가 국회의원이 탑승한 버스에 들어가 주민들의 요구서를 전달한 후에야 버스는 도청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비상도민회의는 “2015년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이후 4년이 되여가지만 이를 둘러싼 부실과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국토부의 일방통행으로 갈등은 최고조”라며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국회나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공항 계획의 근거가 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는 동굴조사와 철새도래

지, 군 공역 중첩 등을 누락했고 오히려 대한 절취 문제를 단순히 장애물로 평가하는 등 엉터리로 진행됐다”며 “결국 재조사가 진행돼 수많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물론, 추가로 제2공항 예정부지를 성산으로 빼어 맞추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무시한 채로 기본계획 용역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공군기지 활용 가능성, 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하수처리, 교통량 증가 등에 대비한 환경 인프라 구축 미비 등도 거론됐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를 찾은 국회의원들은 지난 4년간 국토부와 제주도의 제2공항 강행에 따른 ‘안하무인 전횡’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노비타 스파비데 출시 기념 이벤트

“비데에 스파를 더하자
행운을 더하자!”

이벤트기간 | 9월 18일 ~ 10월 31일
당첨자 발표 | 11월 15일

노비타 제주점 (구, 제민일보 맞은편)

신광로터리 | 빙스 | 요양병원 | 신제주로터리

마리나사거리 | 마리나호텔

구입문의 | 제주대리점 064)758-0991

EVENT 01 구매 인증 경품 추첨 이벤트

1등 휴테크 안마의자

2등 GOLD! 999.9 3.75g

3등 50000

푸집한 경품

1등 휴테크 안마의자 i7+ [1명]
2등 순금 골드바 1돈 [5명]
3등 백화점 상품권 5만원 권 [10명]
4등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명]

이벤트 대상 제품
BD-TE91M / BD-TD90M / BD-AFD500 / BD-WD60 / BD-AE91

EVENT 02 특별한 사은품 증정 이벤트

프리미엄 BD-TE91M
3D 워브
3way 노출
탈취

프리미엄 BD-TD90M
3way 노출
탈취

자동 디스펜서
6만원 상당의 정품 필터 (6개)

399,000원 379,000원

BD-AC50N
NEW BD-AE91
3way 노출
3D 워브

정품 필터 (2개)

199,000원 269,000원